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'11년 2월 9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투자유치과장 천영길(2110-5361), 박성우 사무관(5363)		

지경부, 2010년도 Best10 외투기업과의 간담회 개최

– '10년도 투자신고 우수 기업 중 도착금액, 고용창출 등을 고려 10개 기업 선정 –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최중경)는 2010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(131억불)이 **외환위기 이후 최고 기록**을 달성함에 따라 한국 투자에 모범적인 **외국인투자기업 10개사를 선정**하여,

○ 지난해 **한국투자에 대한 감사**와 **지속적인 對韓 투자를 독려**하기 위해 **2.9(수), 안현호 1차관 주재로 CEO 간담회를 개최**하였음

< 간담회 개요 >

○ 일시·장소 : '11. 2. 9(수) 11:30 – 13:00, 매리어트호텔
○ 참 석 자 : 지식경제부 안현호 차관 및 우수 외투기업 10개사
○ 주요내용 :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, 對韓 투자에 대한 감사 표명 및 지속적인 투자 독려 등

□ 선정된 기업은 지난해 투자신고실적이 우수한 기업중 **도착실적** 및 **고용창출** 등 국가경제 발전측면을 고려하여,

○ 지역별로 미국 2(셀가드, 다우케미컬), 영국 2(글락소스미스클라인, 에드워드), 프랑스 2(다쏘시스템, 다논), 벨기에 1(솔베이), 일본 1(아사히글라스), 말레이시아 1(버자야), 호주 1(맥쿼리) 등 10개 기업을 선정함

※ 2010년도 Best10 외투기업 현황 : 붙임 1 참조

□ **안현호 차관**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0년도 FDI 실적은 외환위기 이후 **10년내 최고기록인 130.7억불을 달성**하였고, 내용면에 있어서도 **질적으로 크게 개선***된 한해였다고 평가함

* **신성장동력 투자비중 증가**('09년 70.6% → '10년 84.6%), **그린필드형 투자 증가**('09년 70.6% → '10년 84.6%), **투자유치국 다변화**(신흥국 비중, '09년 75.9% → '10년 55.5%), **수도권 편중 완화**('09년 57.6% → '10년 33.3%) 등

□ 그러나, 2011년 외국인투자환경은 **유럽의 재정위기 지속, 중국의 긴축기조**, 이집트 사태 등 **세계경제의 불확실성**으로 인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임

○ 美·**EU와의 FTA, 한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** 등 상대적으로 **우호적인 對韓 투자환경** 등을 **전략적으로 활용**하여 외국인투자 실적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

□ 또한, 외투기업은 **한국경제의 중요한 축**의 하나인 만큼 **동반성장의 파트너**로서 **국내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**을 해주길 당부함

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**旣진출 외투기업**·국내수요 대기업·업종단체 등 **민간투자유치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**가 있음

- 외국인투자유치활동(IR)시 외투기업 성공사례 발표 등 **외투기업의 참여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우 효과적**인 만큼, 투자유치활동에 **외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**해 주길 요청함

② 최근 동반성장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므로, 외투기업도 국내기업과 **공동기술개발, 고용창출, 인재양성, 해외시장 동반진출** 등 한국경제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요청함

③ **그린에너지, 바이오, IT융합, 신소재** 등 **녹색·신성장동력** 핵심 산업분야에 대해 외투기업의 **지속적인 투자 확대**를 당부함

- 정부도 同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**현금지원 확대,** 입지지원 등 **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**해 나갈 계획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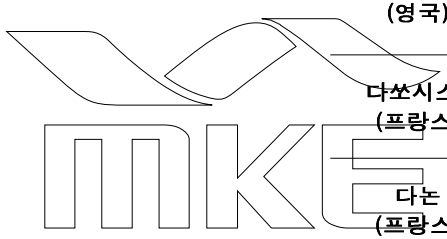
* **현금지원 예산규모 확대** : '10년 31억원 → '11년 140억원

□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투기업들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면도 있으므로, **외투기업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**하는 데 정부가 앞으로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

○ 또한,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입지지원, 규제완화, 노사 관계 등 **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폭 넓게 제시**하였음

□ 지식경제부는 **향후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**이며,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**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**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. 끝.

붙임 : 1. 2010년도 Best10 외투기업 현황
2. 2010년도 Best10 외투기업 간담회(안)
3.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

참고1 2010년도 Best10 외투기업 현황

기업명 (국가)	신고/도착금액 ('10년, 백만불)	고용 인원	주요 내용
셀가드 (미국)	28/25	71	2차 전지용 분리막 시장의 약 26%을 점유하고 있는 선도기업으로, 녹색산업관련 신기술 개발 및 고용 창출 효과 기대
다우케미컬 (미국)	45/-	400	롬앤드하스를 인수한 다우케미컬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LED 핵심소재인 삼중메틸갈륨 등을 국내 생산할 계획으로 수입대체 및 국내 기술이전이 예상
글락소스미스클라인 (영국)	129/126	30	동아제약과의 전략적 제휴로 글로벌신약개발 및 공동판매 등의 행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시장에 진출하여 3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예상
에드워드 (영국)	35/35	470	영국내 진공펌프 생산시설 및 생산본부를 완전히 한국(충남)으로 이전함으로써 고용창출 472명, 수입대체효과 및 연간 수출증대효과 2,500억원 기대
다쏘시스템 (프랑스)	42/25	73	3D기반 산업용SW 기술개발 등 국내 3D 융합산업 발전과 인재육성, 산학 협력 R&D 투자유치 모델 제시 등 경제발전에 기여
다논 (프랑스)	2/13.4	80	유가공분야 세계1위 기업으로, 지역내 낙농업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
솔베이 (벨기에)	30/3	80	2차전지소재, 전자소재 등 녹색기술분야 R&D 센터 설립 및 벤처펀드 조성 등 지속적인 對韓 투자로 한국의 녹색성장에 기여
아사히글라스 (일본)	145/15	742	LCD용 유리기판 등 관련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산업발전 및 고용창출, 세계최대의 LCD패널 양산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
버자야 (말레이지아)	40/10	-	세계적인 자연친화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제주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(면적 43만㎡)을 추진 중으로, 고용창출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기대
맥쿼리 (호주)	12/12	400	2000년 한국 진출이후 '08년 M&A거래 1위에 오른 성공한 금융기업으로, SOC분야 집중투자 및 對韓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지원

참고2 2010년도 Best 10 외투기업 간담회(안)

□ 배 경

○ 2010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(131억불)이 **외환위기 이후 10년내 최고 기록**을 달성함에 따라 **주요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감사 표명**

* 연도별 FDI 추이(억불) : ('00) 153 → ('02) 90 → ('04) 128 → ('06) 113 → ('08) 117 → ('09) 115 → ('10) 131

○ **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** 및 투자 독려

□ 행사 개요

○ 일 시 : 2011년 2월 9일(水) 11:30 ~ 13:00

○ 장 소 : JW메리어트호텔 미팅룸3A(3층)

○ 참석자 : 총 20명 내외

- (지경부) **1차관,** 투자정책관, 투자유치과장 등
- (KOTRA) 외국인투자옴부즈만, IK 종합행정지원실장, 투자유치처장 등
- (외투기업) '10년 Best10 외국인투자기업 대표

* 아사히글라스(日), 글락소스미쓰클라인(英), 다쏘시스템(佛), 에드워드(美), 버자야(말레이시아), 셀가드(美), 솔베이(벨기에), 맥쿼리(호주), 다우케미컬(美), 다논(佛)

□ 세부 일정

시간	내용	비고
11:30 ~ 11:40	인사말씀	**1차관**
11:40 ~ 11:50	인사말씀	옴부즈만
11:50 ~ 12:50	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및 환담	
12:50 ~ 13:00	마무리 말씀	**1차관**

참고3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1.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

□ '10년 외국인직접투자액(신고기준)은 전년(11,484백만불) 대비 **13.8% 상승한 130.7억불 달성**하여 **최근 10년간 최고를 기록**

(단위: 백만불, %)

구분	1999	2000	2002	2004	2006	2008	2009	2010
신고금액	15,545	15,265	9,095	12,796	11,247	11,711	11,484	13,071
증감률(전년대비)	75.49	△1.8	△19.4	97.7	△2.8	11.4	△1.9	13.8

2.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

1 **신성장동력 투자 비중 증가**: ('09) 18.8% → ('10) 23.6%

○ **바이오제약, 태양광·풍력 등 신재생에너지, 콘텐츠·소프트웨어** 등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가 부각

* 바이오제약 : **셀트리온**(바이오시밀러, 1.9억불, 싱), **동아제약**(신약개발, 1.3억불, 英)
* 신재생 : **영양풍력발전**(풍력, 62백만불, 스페인) 등
* 콘텐츠·소프트웨어 : **아이덴티티게임즈**(게임, 25백만불, 中) 등

○ **제조업**(6,657백만불, 78.7%↑)이 '04년 이후 **6년만에 서비스업**(6,303백만불, 17.0%↓)**을 상회**

- **제조업**은 **의약, 화공, 기계장비** 부문이 크게 증가한 반면, **서비스업**은 **유통·물류 분야 대형투자가 줄고***, 금융위기 후 **금융업 부진** 지속

* '09년 유통분야 주요 대형투자 : 이베이지마켓, 13.6억불

< 주요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>

(단위 : 백만불, %)

업 종	2008	2009	2010	증감율
제조업	3,007	3,725	6,657	78.7
- 의약	40	0	708	순증
- 화공	572	204	927	355.0
- 기계장비	242	178	407	129.0
서비스업	8,388	7,595	6,303	△17.0
- 금융	4,608	1,252	960	△23.3
- 유통·물류	1,643	2,469	1,162	△52.9
- 비즈니스서비스	1,143	1,947	953	△51.1

2 **그린필드형 투자 크게 증가**: ('09) 70.6% → ('10) 84.6%

○ **국내기업간 M&A가 활발***해 지면서 상대적으로 **외국인의 M&A 투자**(2,016백만불, △40.3)는 크게 **감소**

* '10상 M&A금액 증감율(전년동기비, 공정위) : 국내-국내기업 30%↑, 외국-국내기업 75%↓

3 **신흥자본국 투자 증가로 선진국 집중 현상 완화:** ('09) 75.9% → ('10) 55.5%

○ **중국**(414백만불, 158.8%↑)*은 **전기전자, 비즈니스서비스** 중심으로 증가, China Desk 설치('10.5월) 이후 372백만불(전체의 90.0%)이 투자

* 아이덴티티게임즈(중국의 싱가폴 우회투자), 제주 웨딩테마리조트(중국의 홍콩 우회투자) 등 감안시 실제 중국의 투자는 7억불 내외

- **인도**(371백만불, 10,912.6%↑)는 **운송기계** 부분을 중심으로 증가

○ **미국**(1,974백만불, 32.8%↑)은 **부동산임대·유통**, **일본**(2,083백만불, 7.7%↑)은 **화공·기계**가 회복을 이끌었으나, 주요 투자업종인 **금융은 '08년 대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함**

- **EU**(3,196백만불, 39.7%↓)는 화공, 의약분야 투자는 늘었으나 그 외 **대부분 업종이 감소**

<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>

(단위: 백만불,%)

연도	2008	2009	2010	증감율
전통선진국	9,091	8,717	7,253	△16.8
미국	1,328	1,486	1,974	32.8
일본	1,424	1,934	2,083	7.7
EU	6,339	5,297	3,196	△39.7
신흥투자국	2,621	2,767	5,818	110.3
중화(중국)	1,692(335)	1,464(160)	1,543(414)	8.8(158.8)
중동	27	238	171	△28.1
기타	902	1,064	4,081	283.6

4 **수도권**(서울,경기,인천) **편중 현상 완화:** ('09) 57.6% → ('10) 33.3%

○ 지자체별로 **투자금액**은 **경북, 서울, 경기** 순, 전년대비 **증가율**은 **광주, 경북, 충남** 순

* 투자액상위(백만불) : 경북(2,703), 서울(2,482), 경기(1,645)

* 증가율상위(%) : 광주(914.4↑), 경북(506.3↑), 충남(217.2↑)